상록탑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당신에게

유현빈
대학취재부 부장

> 가해자의 죽음에 대한 동정은 미투 본질 흐릴뿐

한 성추행 용의자가 경찰이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 전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결국, 다시 피해자만이 남았다.

당신은 미투(#MeToo) 운동이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그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다.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 죽고 싶어질 정도로 성추행이 수치스러운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는가.

누군가는 이번 일을 인터넷상의 '마녀사냥'이라 칭한다. 마녀사냥은 애초에 마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박해당한 무고한 여성들의 역사다. 이번 사건은 본인의 행적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18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성추행 용의자의 일이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사라진 그는 미투 운동에 대한 비난의 시발점이 됐다. 밝혀져야만 했던 일이고, 누군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로의 책임을 추궁한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당했으나 밝힐 수 없었던 일을 숨겨준 사회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들이 나섰다. 결코, 누군가를 향한 복수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죽음은 오롯이 그의 선택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의 선택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칼이 겨눠졌다.

물론 그의 선택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가해자를 향한 동정은 피해자를 고립시킬 뿐이다. 문제의 해결 자체를 불능케 한다. 죽음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감정 이입은 상황을 모든 방면에서 악화시킬 뿐이다.

언젠가 당신은 익명의 증언엔 힘이 없다며 고발하는 이의 신분을 드러낼 것을 요구했다. 어째서 피해자에게만 그토록 엄격한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가? 전(前)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성추행을 폭로했던 비서는 보호를 받고자 방송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왜 피해자들이 숨죽여야만 했는지, 무엇이 그 문제들을 지금까지 숨겨줬는지 직시해야 한다.

미투 운동이 폭력적이라고 비난하고 싶은가? 피해자들이 좀 더 나긋나긋하게 문제를 폭로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잘 참았고, 앞으로도 참을 수 있는데 괜히 이제 와 물타기 한다고 생각하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꽃뱀은 아닌지 검열하는 중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선 곳을 찬찬히 돌아보길 바란다. 과연 당신이 들이댄,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엄격한 잣대는 현재 누굴 위협하고 있는가. 당신도 모르게 가해자의 감정에 이입해 피해자를 등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설

학내 안전,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서는 안 돼

13일 등교하던 학생과 교직원의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커다란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부딪힌 학생이 쓰러졌다는 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대인 오전 9시경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교내 보행자 안전 상태에 경종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다.

캠퍼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작년 5월 아산공학관으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트럭에 학생이 치인 사건, 2010년 5월 이화·포스코관 앞에서 자가용에 학생이 부딪힌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고들은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주변 지형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탓에 발생했다.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학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던 학생들도 많다.

작년 4월 교육부도 대학교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안전시설 확충 및 교육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골자의 '대학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을 관련 기관과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내 교통안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경각심은 점차 높아지는 데 비해 학교 측이 최근 내놓은 대책은 다소 피상적이다. 총무처 총무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내 규정 속도를 주지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차 유도원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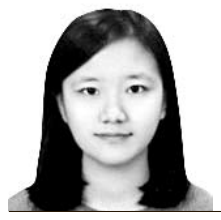
그러나 제시한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전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내 차량 제한속도는 20km인데, 이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시스템으로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차량 속도가 빠를 경우 주차 유도원이 속도를 낮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정도가 제재의 전부다. 학내 도로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도 적용이 안 된다.

학교는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반사경을 추가 설치하고 보행자 도로를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학내 안전 지수를 높이기 위해 시설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강력한 규제방안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차량 주행속도 측정 장치를 설치해 일정 횟수 이상 규정 속도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선 교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칼럼

'바쁘지 않은 것' 은 죄가 아니다



엄정모
소비·16

> 단 하루라도 좋으니 여유를 가져볼 것

2018년 2월은 가장 열정 넘치는 달이었다. 정확히 30년이 되는 해에 한국은 다시 올림픽 개최지가 됐다. 그리고 필자는 이달 그 열정을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는 평창에 있었다. 약 한 달 동안의 인턴 아닌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로운 날들을 보냈다.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 나갈 채비 후 조식을 먹고 셔틀버스를 타는 것으로 시작했다. 도착해 정확히 7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정확히 1시간의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갖는 규칙적인 생활은 학교를 통학하던 전쟁 같은 일상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여유로웠다. 그러나 올림픽 게임 시작 전 일을 시키지 않는 상관에게 왜 일을 주지 않느냐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화를 냈던 날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 여유를 무료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느 사람 사는 이야기가 모두 비슷하듯 필자 정도의 학년과 나이에 하는 휴학은 무의미함을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짜고짜 무슨 계획으로 휴학을 하냐고 묻자 휴학의 휴는 '쉴 휴'라며 휴식을 강조하던 친구가 지금은 통학하는 필자보다 바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평창에서 돌아온 필자는 지금 그 여유로운 생활을 잊지 못해 향수병에 괴로워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시 개강했으니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회와 동아리, 공부 그리고 학원으로 가득한 날을 보내고 있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병은 단순히 필자와 필자의 친구들에게만 해당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빡빡한 생활에 매일 무표정으로 살아가지만 여유로운 생활이 더 힘든 우리는 피로로 가득한 사회를 살고 있다. 누군가는 이 삶을 열심히, 알차게 산다고 포장하지만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질병에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해 본다면 여유를 잊은 생활은 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유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을까. 이는 흔히 힐링 프로그램이라 일컫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생활, 밥을 먹더라도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며 먹을 수 있는 시간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도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라 정의한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병에 걸린 분이 계신다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통학하는 시간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보내는 것, 가만히 바깥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다. 인간이 평균적으로 12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그 중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하루는 0.002% 뿐이니 말이다.

필자는 과거 고등학생 때 대학교 입학 전 꼭 해보고 싶던 일이 있다. 바로 온종일 버스 창가 쪽에 앉아 하릴없이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이다. 이번 학기에는 꼭 그 계획을 실행할 생각이다. 하루쯤은 나른함을 느끼더라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평

우아현 만평기자 wah97@ewhain.net

여론광장

내가 기억하고 함께하는 이화나비

지난 3월 14일 정문에서 이화안의 수요시위가 열렸다. 수요시위는 27년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평화 집회다. 캠퍼스 안에서 이뤄지는 이화안의 수요시위는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했다. 사람들 틈에 앉아 참가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뒤에 서서 수요 시위를 지켜보았다. 저녁 즈음 분홍색 구름으로 덮인 이화 교정의 모습과 노란 옷을 입고 있는 나비들, 섞여 앉아 있는 사람들, 발언을 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괜히 뭉클하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구나. 이 곳에 이화나비로서 있을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이화나비는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 동아리다. 이화나비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캠페인 한다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세미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하지만 내가 변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이 바로 나이기에 이화나비는 많은 것을 바꾸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다.

나에게 일어난 수많은 변화들 중 가장 큰 점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은 '누군가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 할머님들과 나비들을 만나며 그 마음이 달라졌다. 인권 운동가, 평화 운동가 이신 할머님들은 내가 정말 닮고 싶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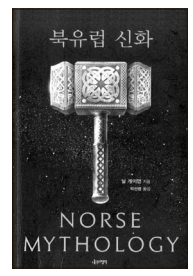
최근 미투 운동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고백들을 듣게 되는데, 그 때마다 나는 할머님들이 생각난다. 1991년 8월 14일 '내가 너무 아팠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 아픔을 겪지 말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공개 증언을 하신 김학순 할머님을 비롯한 그 이후의 또 다른 수많은 할머님들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항상 드는 생각은 '감사하다'이다. 할머님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되풀이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할머님들께 위로를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고, 지칠 때 힘을 얻는다. 또한 이화나비를 하며 만난 수많은 나비들! 항상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들을 느낀다. 힘들 때도 웃으면서 그 시간을 넘겨 버리는. 세미나 때 누구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멋있는 나비들 또한 누구보다 닮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화나비를 시작한지 1년이 된다. 앞으로도 이 땅에 평화가, 할머님들께 명예와 인권이 실현되는 그 때까지 어디에서나 날갯짓 하고 있는 나비가 되고 싶다.

정다은(화학신소재·16)

금주의 책



북유럽 신화 - 닐 게이먼 지음. 서울: 나무의철학, 2017.

영화 '어벤저스'에 등장하는 주인공 '토르'와 하마 모양의 새하얀 '무민(Moomin)'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캐릭터입니다. 북유럽 신화는 바로 이런 캐릭터를 포함해 영화, 그래픽 노블, 온라인 게임 등 최근 많은 문화 컨텐츠의 스토리와 캐릭터에 모티브가 되고 있지만 정작 신화 자체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북유럽 신화는 고대 북유럽의 여러 서사시와 산문을 원전으로 한 게르만 민족의 신화로 '그리스 로마 신화'만큼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러로 유명한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배경과 캐릭터를 포함해 원전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의 이야기를 개작하여 신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문화 컨텐츠 속에서 파편으로만 알고 있던 북유럽 신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북유럽 문화에 대한 정서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홀 인기도서 / 4층 일반자료실 293.13 G127n한]

0214~0315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2	신과 함께 : 이승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3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Dewey, Melvil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2011
4	신과 함께 : 신화편	주호민	애니북스	2012
5	신과 함께 : 저승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6	동양철학 스케치	김선희	풀빛	2009
7	Behavior management : positive applications for teachers 7th ed	Zirpoli, Thomas J.	Pearson	2016
8	은하영웅전설	전중방수	이티카 : 디앤씨미디어	2011
9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Rowling, J. K.	문학수첩	2005
10	가면산장 살인사건	동야규오	재인	2014